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쿨 재팬의 재기

심 현 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2022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디지털화에 대응한 콘텐츠 전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쿨재팬 전략을 8가지 중점 지식재산 전략 중 하나로 발표하였다. 이번 지적재산추진계획에서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침체된 문화예술분야를 대상으로 디지털화비대면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게 재정비한 쿨 재팬 전략을 제시하였다.

■ 2022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의 수립

지구 온난화 연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노벨 물리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된 일본계 미국인 마나베 슈쿠로(90) 미국 프린스턴대학 선임연구원은 노벨상 수상자로 발표된 직후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발언해 일본 내에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는 일본의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파고들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의 우려는 2021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GII, 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일본이 13위를 기록하여 한국(5위), 싱가포르(8위), 중국(12위)에 뒤처지는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문화예술 측면에서도 한류문화에 비해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한 일본은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이 이노베이션에 참여하여 상호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하여 비즈니스를 확대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한편,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2003년 시행된 ‘지적재산기본법’을 근거로 매년 ‘지적재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기

본방향 및 세부 시책을 제시 중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적재산추진계획 2020(20.5.27.)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분야의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2022년 6월, ‘2022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디지털 정책, 그린 정책을 주축으로 8가지 중점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일본은 ① 스타트업·대학의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 ②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의 강화, ③ 표준의 전략적 활용 추진, ④ 디지털 사회의 실현을 위한 데이터 유통·이용·활용 환경의 정비, ⑤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전략, ⑥ 중소기업/지방(지역)/농림수산업 분야의 지식재산 활용 강화, ⑦ 지식재산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운용·인재 기반의 강화, ⑧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쿨 재팬(CJ, Cool Japan)의 재기 등 8가지를 중점 지식재산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 쿨 재팬 전략의 재기

일본의 대표적인 대외 문화예술 정책은 쿨 재팬이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음식, 관광, 문화예술,

이벤트·엔터테인먼트 등의 쿨 재팬 관련 분야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그중에는 존속이 위협해진 분야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쿨 재팬 분야는 일본의 풍부한 문화 및 매력의 원천으로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가운데 2021년 개최된 2020년 도쿄 올림픽대회·도쿄 패럴림픽대회에서는 일본의 식문화 및 생활문화가 선수·관계자의 SNS 등을 통해서 널리 세계로 전달된 것을 계기로 일본의 매력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어 향후 쿨 재팬 정책을 진전시킴에 있어서 큰 유산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특히,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라이브 동영상 등이 전세계의 팬들의 호응을 얻으며, 일본의 소프트 파워의 원천이 되었고, 또한 아티스트의 가상 세계투어 등 새로운 가능성이 확대되어 쿨 재팬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디지털 기술의 보다 많은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2022년 지적재산추진계획에서는 쿨 재팬 전략의 재기를 위해 수립한 정책의 진행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관점에서의 발전, 커뮤니티의 형성에 의한 체험·감동의 공유, 쿨 재팬 관계자가 결합하여 서로 발전하는 장으로의 참여라는 세 가지 관점 하에 구체적인 쿨 재팬 전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디지털화에 대응한 콘텐츠·쿨 재팬 전략

Web3.0의 시대를 맞이하여 메타버스 또는 NFT (Non-fungible token) 등의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술의 진전이 더욱 가속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유통의 가능성이 확대되는 등 콘텐츠 비즈니스에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콘텐츠는 일본 문화의 주요한 기반으로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함과 동시에 일본의 소프트파워 및 디지털 경제력의 강화 등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의 주요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된 콘텐츠

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전달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환경의 정비가 중요하고, 디지털 시대의 속도에 대응한 형태로 방대하고 다양한 저작물의 권리처리를 간이·신속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따라서 “2022년 지적재산추진계획”에서는 디지털화에 대응한 콘텐츠·쿨재팬 전략으로서 관계부처별로 구체적인 단기·중기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디지털화에 대응한 콘텐츠 전략으로는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서의 표준양식의 제공을 하는 「저작권 계약서 작성 지원 시스템」의 공용 등을 통해서 저작권에 꼭 정통하지 않은 프리랜서 크리에이터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의 적정한 계약 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 계약서양식을 작성하여 보급·개발을 수행하는 등 프리랜서 예술가를 포함한 문화예술 관계자의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지원과 더불어 내각부,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관계부처 등에서는 콘텐츠 분야에 메타버스 등이 초래하는 새로운 법적 과제 등에 대응하도록 전문가들이 검토할 수 있는 회의를 설치하여 과제를 파악하고 논점을 정리함과 동시에 관계부처·민간사업자가 필요한 규정 정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제산업성에서는 콘텐츠의 제작·유통과정의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실증을 촉진하고, 공급망 전체의 견지에서 콘텐츠 제작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유통의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콘텐츠 제작자의 사업환경 건전화를 촉진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외부성에서는 일본 콘텐츠의 방송이 나오지 않는 국가·지역(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남미, 중동, 동유럽, 아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일본의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영화, 버라이어티 등의 방송 콘텐츠를 무상 제공하여 이들 국가·지역에서 프로그램의 방송·배급을 실시함에 따라 일본에 대한 이해의 촉진, 친일감 조성, 장래적인 상업적 해외 전개에 대한 기반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한편, 쿨 재팬 전략으로서 경제산업성에서는 지역의 특성 및 강점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시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신사업의 창출)을 위하여 지역기업 등이 대처하는 실증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문부과학성과 내각부에서는 문화재의 새로운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에 의한 정밀한 데이터 계측에 의하여 발신의 강화 및 정교한 복제품 작성, 콘텐츠 제작 등의 대처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부과학성은 미술관·박물관의 DX 추진을 위하여 미술품·문화재의 관리를 위한 표준화 및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다. 또한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 향상 및 활발한 시장형성을 위하여 추적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국토교통성에서는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이 세계의 여행자로부터 선택될 수 있는 관광지가 되도록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 조성 및 방일 프로모션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내각관방, 법무성, 외무성, 후생노동성에서는 공연을 위한 일본으로의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신규입국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국내외 감염 상황에 입각하여 적절한 시기에 입국제한을 재검토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신청 시스템(입국자 건강확인 시스템(ERFS))의 운용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고, 문부과학성은 문화예술 분야의 적정한 계약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 계약서 양식을 작성하여 그 보급개발을 수행하는 등 프리랜서 예술가를 포함한 문화예술관계자의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관계부처에 단기, 중기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일본은 그동안 막혔던 국제적 교류의 전면적인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추진계획 2022에서는 쿨 재팬 전략을 재가동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부처별로 단기·중기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25년 개최 예정인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서 관광·음식·문화·건강·의료·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지식재산 창출, 활용

이 예상됨에 따라 엑스포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쿨 재팬 전략을 재기하고자 한다. 이번 쿨 재팬 전략이 장기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일본 경제와 사회문화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 심현주·이유리나(2022).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22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IP Focus. 제 2022-15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2022), 「지적재산추진계획 2022(知的財産推進計画 2022)」,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 한국저작권위원회(2021), 「지식재산전략본부, 재팬서치 전략 방침 2021-2025를 결정」, 저작권 동향 뉴스레터 제21호,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20),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재팬 서치(Japan Search)' 정식 버전 공개」, IP News 2020-35권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본 저작물을 인용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2022).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쿨 재팬의 재기”.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아키스브리핑 제313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심현주 hjshim@kiip.re.kr
ACKIS브리핑 작성 2022.12.28.

#일본 #쿨 재팬 #포스트코로나 #지적재산기본법
#지적재산추진계획